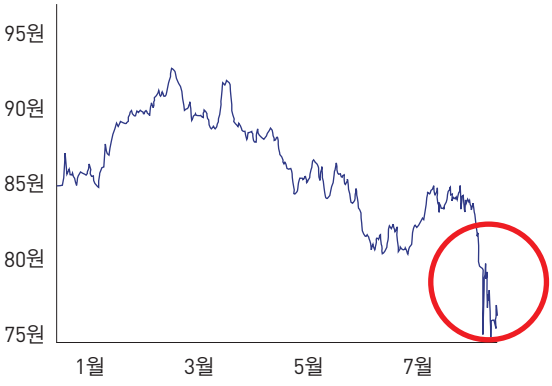
격변의 남아공, 환율과 함께 요동치다

남아공사무소

환율 변동상황

• 남아공의 환율은 5월부터 1랜드(ZAR) 기준 85원(WON)을 중심으로 변동했으며, 8월 초에 급락하기 시작하여 현재 7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8월 13일 기준 80원 이하로 하락 후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남아공 환율(2018.01.01~2018.08.20)



출처 : www.xe.com

토지몰수로 인한 자본 유출

• 1994년도부터 도마 위에 올랐던 토지분배·몰수 문제는 현재까지도 남아공 내에서 분쟁거리이며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 2018년 2월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의회는 토지 무상몰수 안건을 통과시켰고, 8월 말에 헌법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 토지무상몰수정책 이외에도 흑인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제 1야당인 DA(Democratic Alliance)와 정치가들은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타 정책에 비하여 흑인권리와 복지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투자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남아공화폐 가치 급락으로 對 남아공 수출업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

• 미국과 중국이 타국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남아공의 對미 알루미늄·철강 수출품 또한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서 남아공 내 주요산업인 자동차산업에도 관세를 부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관세부과의 나비효과로 남아공 내 시장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과된 관세는 미국에 수출되는 남아공 알루미늄·철강산업 내 약 7,5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자동차 수출산업은 남아공 내 총수출의 14%를 차지한다. 만약 미국이 남아공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관세를 매긴다면 남아공 내 총수출가치에 상당한 피해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남아공의 경제에 지속적인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외국인 투자자본

• 2018년 3월과 6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해외투자자본이 이머징마켓에서 빠져나가면서 남아공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경험한바 있다.

• 연준에서 2018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2월쯤 재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이머징마켓에서 투자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머징마켓에서도 대표적 국가인 남아공의 자산·통화가치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 남아공 내의 외국인 투자자본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단기투자이익을 노리는 '핫머니'의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미 금리인상은 남아공 자본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해외 정세를 꾸준히 살필 필요성 증대

• 남아공 환율(RAD)의 변동성은 원·환율(USD)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변동성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 요인이 존재한다.

• 남아공 환율이 급락할 경우 실제로 RAD 환율(WON)도 같이 하락하며 한국에서 대외 농산품 수출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따라서 환율을 확인하는 동시에 수출입시 국내 정세만 살필 것이 아니라 관련된 해외 정세를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 방향과 미국이 부과하는 세금 항목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유동성 확보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하여 해외 투자자본 유출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 Businesslive「US rejection of duties exemption threatens 7,500 jobs in SA」
iol「Cars make up 14 percent of SA's total exports」